

2016년 7월 11일 월요일 새벽말씀(편집본)

네, 다시 또 하루의 새벽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어제 잠언을 써 놓은 것을 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하나하나 듣겠습니다.

말씀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표적을 일으켜야 되는데, 표적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실 것 같습니다. 표적!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표적을 하나님이 일으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갑시다.

첫 번째 잠언은 이 잠언을 썼습니다. 기도하고 했는데.

1. 생명을 낳아야만 생명의 표적이 일어난다.

첫 번째 잠언을 이렇게 묵시로 받아썼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생명의 표적을 일으키려면 생명을 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아야 아기를 통해서 표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데, 우리들이 신앙의 복음으로 생명을 전도해야 그로 인해서 생명의 표적이 일어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다시금 또 세 번째 잠언을 기도하고 받았습니다.

3. 우연히 표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아, 내가 해 보니까 우연히 표적이 안 일어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아, 정말로 우연히 표적은 안 일어난다.’ 그렇지요?

우연히 표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왜냐하면 표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나누면.

인간 책임 분담으로 스스로 자기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표적입니다. 자기가 한 일도. 그러나 우리가 보는 또 하나의 표적은, 형이상학적인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일어나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하겠습니까?

“야, 내가 오늘 힘이 남아돌아가니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우연히 됩니까? 그렇게는 안 해지지.

반드시 하나님은 자극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만사의 모든 도를 깨달은 것이, 자극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건드려야 됩니다. 이 꽃을 건드리니까 흔들어지지요. 그냥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표적이 일어나지를 않는다.

이제 알았지요? 이것을 여기서 다 쓰려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꿈틀거리라. 행하여라. 하면 표적이다.

표적이 뭐냐? 표 나게 한 일이 표적입니다.

부엌에 그릇 갖다놓고 내가 바빠서 빨리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밥을 푸려고 하니깐 안 씻어서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내가 안 했으니까 그냥 있지. 그것은 10년 있어도 그냥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표 나게 하는 일이 표적입니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와서 무엇을 배웠는가 하니,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잖아요. “하라. 내가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냐?”

4.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든지, 천사나 사람을 통해서, 바람, 동물들, 각종 만물들을 통해서 행했을 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명해서, 하나님 뜻이 있어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한 표적이다.’ 이렇게 보라.”

잠언이 책으로 나갈 때는 부드럽게 썼습니다. 그러나 성서로 나갈 때는 “곧 하나님이 명하여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직접 행한 것이나 다른 것이 없는 표적이니라.”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행하니까. 바람을, 모든 만물을, 그리고 어떤 지진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행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표적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직접 행한 것이다. 감격하고 감사해야 된다.” “네. 할렐루야. 그러하옵시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 대답하라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하옵나이다. 이제 확실히 알았네요.”

사람이 말하면 항상 사람이 말하는 것같이 생각됩니다. 항상 사람이 말하니까.

선생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큰 것입니다.

5. 표적이란 쿵을 팔이 되게 하는 것이 표적이 아니다. 그것은 비 원리지. 팔이 쿵이 되게 했다고 표적이 아니라 안 될 것을 되게 한 것이 표적이 아니냐.

안될 것을 되게 했다면 그게 표적이 아니냐. 표 있는 일이니까.

해를 받을 상황에서 해를 받지 않은 것이 표적이 아니냐.

이게 모두 표적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해를 받을 상황에서 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표적을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알겠지요? 표적에 대해서 오늘 꼭 가르쳐 주고, 표적 일으킨 이야기를 해야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표적이다!

하나님이 함께했으니 그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함께하셨구나.’ 절실히 깨닫고 말씀 듣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9. 하나님은 그 자체가 표적이지시다. 표적의 존재자이지시다. 그가 행하시는 일들이 다 표적들이다. 표적의 실상체다.

10. 하나님과 그 부리는 천사나, 구원자는 안 보인다. 어디 보이냐. 천사가 보이냐.

가끔 보이잖아요. 특이한 때만. 그 외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안 보여도 실상은 되어 있으니까.

자, 보세요. 단상 위에 지금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안 보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물 컵이 여기에 왔잖아요.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나 밖에 할 사람이 더 있습니까? 안 보였는데 물 컵이 여기에 와있네요. 아까 오른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왼쪽에 와있네요. 이것을 누가 했겠습니까?

“안 보여도 해 났으면 믿어라.”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안 보이게 하신다니까. 안 보이게 하십니다.

-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 표가 나게 행할 때 표가 나게 행해 주신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표가 나게 해야 하나님도 표가 나게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 표적이 일어난다.

- 인간이 어떤 일에 있어 표적이 일어나도록 결심하고 행한다면 크고 작고 결국 표적이 일어나더라. 무엇을 결심해야 합니다. 똑같이 일을 하다가도 ‘안 되겠다. 하다보니까 3시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느냐? 에이, 마음먹고 하자.’ 하고서 확 해 버리니까 1시간 만에 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표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표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목표한 것을 행해 버렸다! 그것은 표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든 적은 시간이 걸렸든 기어코 목적을 이행했다면 그것은 표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전도했습니다. 물 먹고서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화하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가 먹는 물은 금방 목마르다. 내가 먹고 있지만.” 그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 너, 남편 데리고 와. 같이 먹어야지. 너, 남편 있어? 데리고 와.” 하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알아 버렸습니다.

둘 중의 하나이니까 예수님께서 짚어 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야, 너 애인 있으면 같이 데리고 와.” 그랬을 때 “없다.”고 그러면 얼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 애인 있어? 없어?” 계속 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있어도 없다고 하지요. “애인 있으면 애인 데리고 와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면 좋겠다.” 그러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알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전도 술법을 다 가르쳐 주었잖아요. 전도 비법, 상대를 아는 것.

그랬더니 “지금은 없습니다.”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 하며 예수님이 짚어 내니까 예수님을 두고 선지자가 아니냐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느냐?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미신 섬기듯이 섬기고 여러 가지인데, 유대인들은 또 저렇게 섬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그렇게 합니다.”

“다 따르지 마라. 이것도 저것도 따르지 말고 오직 나만 따르라.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을 듣고 나만 따라라.”

그래서 말씀을 진지하게 하니깐 싹 마음이 빠졌습니다. 또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럼 메시아 그가 언제 옵니까? 그가 오면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는데요. 너무 너무 잘 가르쳐주시니 지금 그 생각이 납니다.” “여인이여, 그 사람이 나로다.” 하셨습니다. 믿었어요. 놀랐습니다. 그게 표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전도했다.” 그것이 표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역사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과 근사한 그런 상징적인 입장이다.”

그와 같이 그러하다는 것을 표적으로 말씀하셨고, 이것은 전도한 표적이잖아요. 생명을 구원한 표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향유 옥합을 쏟은 여인이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그도 역시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네 이름을 이 복음이 가는 곳까지 계속 말하리라.”하셨고, 2천년이 되었는데도 오늘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표적들입니다. 이런 표적들을 배워야 됩니다.

15. 표적도 배워야 표적에 대해서 알아서 표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사람들은 표적은,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바닷물이 10미터씩 줄어 붙고, 바닷물이 오다가 딱 멈추고, 그렇지 않으면 지상에 이변이 막 일어나는 이런 큰 것만 표적으로 생각합니다.

“백년 만에 폭설이 처음이야. 이런 표적은 처음이야.”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너무 큰 것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한 예언들이나,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한 것을 잘못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말세가 오면 내가 인자가 세상에 오기 전에는 해가 어두워진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피 빛처럼 되어서 빛을 못 낸다. 별들도 떨어진다. 큰 표적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 강사들이 “말세 때는 해가 어두워지고, 없어져 버리고, 달이 비실비실하여 빛을 못 내고 꼭 초롱불같이 된다.”고 합니다. 부흥강사들은 아주 코미디언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다녔다구요. 그러나 나는 코미디언처럼 그렇게 안 하잖아요. 웃기만 하고 정중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잖아요. 나는 그런 것 안 합니다.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부흥강사들 설교할 때 오죽이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해가 갑자기 싹 없어져서 캄캄해서 ‘어머니, 아버지!’ 막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없어져서 그대로 지구가 얼어버려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뽕뽕 얼어서 다 죽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살아난다. 예수님 믿던 사람들도 무덤에서 살아난다.” 어디서 그렇게 기교오묘하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4. 모두 과거를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솔직히 어떻게 하셨나,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너희들이 스스로 했는가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나 생각해 보라.’ 했는데, 생각을 안 하더라. 신평야에 와서 생각해 보라고 하니깐 그것은 생각치 않고 우선 당하는 어려움만 생각하고 있더라. 과거에 어떻게 해준 것을 생각해야지.

그래서 표적을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게 되었노라.”

“너희들이 지금 어렵다고 지금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안 도우시는가 잘 모르겠네.’ 하지 말고 과거에 어떤 곳에서 너희들이 이 섭리를 이렇게 따라왔느냐?”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으시고, 행하시고, 천사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몇 달 동안 계속 붙잡아 졌다는 것입니다. 게~속! 한 3년 동안 붙잡아 주고, 지금도 계속 해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이렇게, 표적 가운데 살지 않았냐.” 했습니다.

25. 하나님 때문에, 메시아 때문에 살았지! 이제 신앙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육적으로도 살았고.

“그를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며 생활 속에 애인처럼 사는 것이, 이게 표적이다. 뭐할래? 살려 줘는데. 죽음에서 살려 줘는데 뭐하느냐.”

여러분들, 그와 같이 죽음의 신앙의 잠, 죽음의 세계에서 깨워서 이끌어 냈으니 또 그 세계에 또 갈 것입니까? 옳은 길을 가야할 것이 아닙니까? 이제부터. 감사하다 하면서. 그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고, 주님이 메시아가 구원했으니 이제는 그를 사랑하며 섬기며, 그것 밖에 없습니다. 생활 속에 살면서 그의 일을 같이 해 주면서.

여러분을 신앙이 죽은 채로 놔 두었으면 지금까지도 사망권에서 아무런 의로운 일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새 역사를 못 보았는데 무슨 전도를 하고 돌아다닙니까?

다시 살아나서 전도도 하고, 보람 있게 살고, 뜻있게 살고, 고마워하고 기뻐하며 살았잖아요.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더 큰 비전을 일으키자.’ 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인간을 돕고 사랑하고 함께하시는 것이 정말로 큰 표적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을 알고, 큰 표적인 것을 알아라.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 하나님이 ‘말씀’을 그 보낸 자를 통해서 행하고 있는 것이 최대 표적이다. 영원히 지옥으로 갈 자들을 영원히 천국으로 가게 만든다. 말씀 듣고, 그게 최고 표적이 아니냐. 왜 모르느냐.

선한 표적, 하나님의 의롭게 하는 표적이 그렇게 큰 것이다. 악한 자 심판하는 그게 무섭고, 그게 크냐? 그것은 우리에게 해당도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표적,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어서 바로 천국으로 가게 만들고, 지상에서 지상천국 속에 살게 만드는 그게 큰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극적인 표적들을 보고 거기에만 신경 쓰지 말라. 홍수, 화산, 화재, 가뭄, 각종 병, 재난들 일어나는 이런 것만 자꾸 자극적이게 신경 쓰지 마라.”

무지한 인간일수록 그런 것에 더 자극 받는 것을 쳐다봅니다. 그런 것을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표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때는 받고 죽고 시체보고 울고 짜고 막 피를 흘리고 그런 것을

봐야 “아,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은 계시다.” 이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살게 가르쳐 주고, 의로운 말씀 주실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런 것만 역사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천상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그가 가르쳐서 알게 해 주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안 가르쳐 주면 모르니까.

봉사가 어떻게 됩니까? 봉사는 알 수 없지. 봉사가 못 보잖아요. 하루 종일 못 보는 것입니다. 병어리가 평생 동안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낫기 전에는 못하는데.

여러분들, 봉사 같은 사람들, 병어리 같은 사람들, 귀머거리 같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알아듣잖아. “아, 이게 표적이구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딱 알면 그것은 이미 눈이 떠진 것입니다. 소경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 선을 행하며 몸부림쳐 양심껏 사는 자, 누구보다도 표적, 표가 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31. 사망으로 가는 생명들을 하나님과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세계로 가게 해 주는 것이, 이게 생명의 표적을 일으키는 일이 아니냐.

33. 하나님과 주를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며 끝까지 믿음을 파선하지 않고 지키고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표적의 사람으로 온 것이다.

34.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라도 끝까지 해야 그것이 소망 있는 것이 된다. 그것이 표적이다. 여러분은 신앙 한 가지를 끝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입니다.

뭔가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게 표적 아닙니까. 끝까지 안 하면 안 됩니다.

무엇 하나라도 끝까지 해야 거기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이 제일 큼니다. 다른 것보다, 신앙!

어떤 여자 하나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것은 가다가 사랑 갖고 못 사니까, 나이 먹으면 서로 끝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밥도 끝까지 계속 많이 먹을 수 없잖아요. 터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고, 거기에 신앙 투자하는 것은 끝까지 해도 영원히 넘어가니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추위와 배고픔과 힘들과 어려움과 핍박과 이런 것 속에서 현재까지 신앙생활 지키고 왔잖아요. 그게 표적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여러분들 개인의 표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새벽에 교회 오는 것이 표적이지 않습니까. 새벽예배 오는 것이 얼마나 표적입니다. 그게 표적이란 말입니다. 소망이 생기지, 희망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혼자 새벽제단 100일 쌓으려면 힘드니까 이렇게 하면서 같이 쌓아야 됩니다. 힘들잖아요. 혼자 철야기도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 뭐하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것이 제일 좋아합니다.

선생님도 지금 아주 표적을 일으키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표적 공부를 가르쳤으니 은혜를 감사하고,

표적에 대해서 이제는 더 알고, 집에서 연구하고, ‘아, 이런 것이 표적이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표적을 행했구나.’ 이와 같이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표적이 일어났으니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아니냐? 내가 함께했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감격하고 좋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시고, 의로 채워 주시옵소서.

삼위의 큰 능력과 권능과 은혜가 이들에게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그럼 여기서 말씀을 마칩니다. 안녕!